

순천시, 지역 관광업계 회복 사활... 지원책 확대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300만원
관광사업자 대상 시설·운영비용
융자금리 지원 재정 부담 줄여
“시장 활성화·경쟁력 강화 기대”

순천시가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 회복과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한시지원) 등을 마련하고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온라인 홍보(SNS,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및 상품 판매 마케팅



순천시가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 야경 모습. 순천시 제공

비용 등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1일까지로, 순천시청 관광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리 1.0%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을 지원한다.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역시 순천시청 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게 3.03%(변동금리, 규모 및 업종별 우대금리 상이)의 금리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은 오는 5월16일까지 접수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취급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행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각 업종별 협회 및 전남도관광협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관광과(061-749-581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이달 말까지 접수

순천시는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6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750명으로 지난해 600명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1955년 1월1일~1974년 12월31일 기간 출생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검진 지원비는 22만원으로, 순천시는 자부담금 10%를 시비로 지원해 도내 22개 시군 중 검진비를 100% 지원하는 9개 시군 중 하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이와 함께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5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접종비 4만원

순천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접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55세 이상(197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비는 4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최근 일주일 이내 발급)을 지참해 평일 오전 11시30분까지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과거 접종 이력이 있거나 생백신 금기자는 접종이 제한된다. 또 대상포진을 앓았다면 회복 후 6개월~12개월이 지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생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되는 면역저하자(암, 자가면역질환 등)는 사백신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질환명이 명시된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순천시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순천시가 미래 혁신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우주 관련 강좌를 통해 첨단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관심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114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까지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로, 순천시 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061-749-66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합동점검반이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17일까지

순천시는 설 명절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7일까지 전통시장, 여객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청, 소방서, 전기·건축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대응 매뉴얼 및 명절대비 안전요원 인력배치 실태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및 비상구·계단 등 방화구획 유지관리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특히 화재 발생 요인이 높은 전통시장(웃장, 아랫장,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설 전까지 보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구조 특성상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이용객과 상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및 주택화재 예방 시민 홍보, 공사장 및 공공시설 안전 점검, 농축산시설 안전 점검, 취약계층 돌봄 및 의료시설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 30만원 지원

순천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과 반사신경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기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만2179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약 43% 증가했

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7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사람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 기준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순천=배서준 기자